

유재환·오대환, 다이어트로 바뀐 일상

MBC '전지적 참견 시점'...유재환, 4개월 간 32kg 감량

오대환도 살이 많이 빠진 몸매 눈길...화장품 CF모델 발탁

방송인 유재환과 배우 오대환이 다이어트로 바뀐 일상을 공개했다.

28일 오후 11시5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유재환과 오대환이 참견인으로 출연했다.

이날 유재환은 확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한 "4개월 동안 32kg이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이어트 후 사람들이 내게 집중해주는 게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송은이

는 "우리는 한결같이 집중해줬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걸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재환은 "바뀐 모습이 언뜻 거울에 비치면 되게 모델 같다"며 만족해 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식탐도 자제했다. 스케줄 이동 등 휴게소에 들른 그는 여러 음식을 주문했지만, 섭취량은 철저하게 지켰다.

유재환은 "(음식은) 최대한 오래 씹고 먹는다. 예전에는 포만감이 행복이었다면 지금은 맛이 가

장 큰 행복이다"고 밝혔다.

오대환 역시 살이 많이 빠진 몸매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끈대 콘셉트의 화장품 CF 모델로 발탁돼 촬영장에 나섰다.

오대환은 김태훈 매니저에게 입고 있는 바지를 보여주며 주먹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다.

김태훈 매니저는 "오대환을 보고 스테프들이 '오빠 살 빠졌다'고 말한다"면서 "나한테는 살 빠졌다고 하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앞서 두 사람은 동반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오대환과 매니저는 촬영 중간 대기실에서도 아스파라거스 등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찾아보며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웠다.

특히 고혈압 증상이 심했던 김태훈 매니저는 이날 방울토마토만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다. 저녁 시간에 오대환은 고기 한점을 건네며 "고기만 먹으면 살이 안 쪼인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스튜디오에서 오대환은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함께 하면서 6kg 정도 빠졌다"며 "매니저는 15kg 정도 줄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뉴스1



천우희 "진주로 살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 종영소감

JTBC 금토드라마 '멜로가체질' 종영 소감



새로운 매력을 발산한 배우 천우희가 종영 소감을 전했다.

지난 28일 종영한 JTBC 금토드라마 '멜로가체질'은 서른 살 여자 친구들의 고민, 연애, 일상을 그린 수다블록버스터로, 천우희는 극 중 서른 살의 딸기 만렙 드라마

작가 '입진주' 역을 맡았다. '멜로가체질'은 영화 '극한직업'으로 160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병헌 감독 특유의 말맛 대사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 뻘하지 않은 스토리 전개 등 기존의 드라마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마니아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특히 '멜로가체질'을 통해 처음으로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했던 천우희는 첫 회부터 먹방을 비롯한 생활연기를 유려하게 선보이며 성공적인 변신을 알렸다. 그야말로 천우희의 재발견이었다. 천우희의 감정이 담긴 내레이션은 극을 풍성하게 이끌었고, 중심을 잡아주기에 충분했다. 코미디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해낸 천우희에게 호평은 계속되었다.

이에 천우희는 29일 소속사 나무에터스를 통해 "5개월 동안 정말 쉼 없이 연기했는데 진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스태프분들과 배우들, 감독님 너무나 힘이 잘 맞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행복한 현상이었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멜로가체질'은 독특함과 천우희의 색다른이 어우러져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생작으로 회자됐다. 특히 천우희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 매 작품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던 천우희가 앞으로 보여줄 또 다른 매력에 관심이 높아진다.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4일 연속 1위 · 49만 ↑

'양자물리학' 2위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감독 곽경택 김태훈)이 4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 따르면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은 지난 28일 20만1978명의 관객을 동원하

며 누적관객수 49만7850명을 기록했다. 25일 개봉한 이후 4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상을 지켰다.

2위는 '양자물리학'으로 같은날 11만1011명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27만6857명을 기록했다. 이어 3위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로 이날 10만9814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 43만300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은 한국전쟁 중 기울어진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었던 인천상륙작전 하루 전, 양동작전으로 진행된 장사상륙작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평균나이 17세, 훈련기간 단 2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투입된 772명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tvN '날 녹여주오' 이흥기, 특별출연에도 빛나는 존재감

'날 녹여주오' 이흥기가 배우들과 남다른 케미스트리로 극의 재미를 더했다.

지난 28일 오후 처음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날 녹여주오' (극본 백미경/연출 신우철)은 24시간 냉동 인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남자가 미스터리한 음모로 인해 20년 후 깨어나면서 맞이하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담는다.

이흥기는 극 중 선배 PD 마동찬 (지창욱 분)을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 그가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일편단심 등한 바라기 손현기 역을 맡았다.

이날 1회에서 현기는 동찬을 도와 24시간 냉동 인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현기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고미란(원진아 분)을 따라다니며 설득하기도 하고, 냉동인간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등 열혈 조연출의 면모를 보였다.

이흥기는 동찬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고, 또 지지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냉동인간 프로젝트 앞에서 불안해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며 극의 재미를 더했다. 또한 지창욱을 향한 무한신뢰를 보여주며 남다



른 브로맨스를 완성해 눈길을 끌었다. 짧은 특별출연이지만 지창욱, 원진아 등 배우들과 특급 케미를 이뤄내며 감초 연기 활약을 펼쳐 앞으로 전개에도 기대감을 더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